|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
|---|---|---|
| 2026. 11. 9.(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 | |

| 담당부서 |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김지호 팀장(전화: 061-820-3550, 전자우편: jhkim330@kisa.or.kr)<br>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장한나 선임(전화: 061-820-3552, 전자우편: hn7462@kisa.or.kr) | |
|---|---|---|
| 참고자료 |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 총 2매 |

# 대한민국 차세대 보안 리더, 대만 국제 해킹대회 우승!

## - '팀 비오비(TEAM BoB)', 인공지능(AI) 보안 역량 겨루는 대만 이지스 해킹대회(AEGIS CTF) 국제 초청전에서 정상 차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수료·교육생으로 구성된 '팀 비오비(TEAM BoB)*'가 대만 이지스 해킹대회(AEGIS CTF) 국제 초청전에 출전해 우승을 거두며,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026. 11. 9.(월) 밝혔다.

* 팀 비오비(TEAM BoB) 구성: 14기 강호석·윤정현·이준호·현채을, 15기 진형권(총 5인)

이지스 해킹대회(AEGIS CTF)는 대만 국책 연구 기관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 등이 주도해 개최하는 대만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을 초청하는 국제 초청전 형태로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국립성공대학교(NCKU)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대만 참가팀 10개 팀, 전년도 우승 1개 팀(대만), 국제 초청팀 5개 팀 등 총 16개 팀이 참가했다. 국제 초청팀으로는 한국의 팀 비오비(TEAM BoB)를 비롯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해킹대회인 데프콘 해킹대회(DEFCON CTF)에서 2024·2025년 연속 우승한 엠엠엠(MMM)(미국·한국·캐나다 연합팀), 2026년 우승한 연합팀(Blue Water)의

구성팀 워터 페들러(Water Paddler)가 출전했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레벨원엑스(Lv1x), 태국의 도조(Dojo) 등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보안을 위한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을 위한 보안(AI for Security & Security for AI)'을 주제로 진행돼, 참가팀들은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취약점 분석 ▲실시간 방어 ▲인공지능·머신러닝 시스템 보안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겨뤘다.

팀 비오비(TEAM BoB)는 세계 정상급 해커팀들과의 경쟁 끝에 최종 1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우승은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의 수료생과 교육생이 함께 거둔 성과로,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의 실무 중심 교육이 세계 수준의 보안 역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취약점 분석 트랙 신정훈 책임 멘토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보안 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보안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회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교육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한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주형 인공지능(AI)보안인재단장은 "이번 우승은 우리나라 차세대 보안 인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교육과 글로벌 기술 교류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정예 보안 인재를 지속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